



프리마코프 독회 2017: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프리마코프 독회(Primakov Readings)는 2015년 서거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의 학술적·정치적 업적을 기릴 목적으로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이 2016년부터 열고 있는 연례 국제 포럼이다. 필자는 IMEMO 초청으로 2017년 6월 29~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리마코프 독회 2017에 참석할 수 있었다. 프리마코프 독회는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2016 세계 싱크탱크 순위(2016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의 우수 싱크탱크 콘퍼런스(Best Think Tank Conference) 상위 9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이번 독회에서도 19개국 50여 명의 패널과 수백 명의 전문가가 이틀간 러시아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째 날에는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세르게이 카티린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회장, 알렉산드르 단킨 IMEMO 의장(president)의 연설이 있었던 개회식을 시작으로, 러·미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갈등, 유라시아 경제협력, 국제 테러리즘 등에 관한 세션이 이어졌고, 만찬과 함께 IMEMO의 2035년 세계 전망(World in 2035. Strategic Global Outlook) 발표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이 있었던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러시아·EU 관계, 우크라이나 위기, 4차 산업혁명

등에 관한 세션이 이어졌고,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의 연설로 마무리됐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세션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지난 7월 7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러·미 관계 관련 세션과 라브로프와 키신저의 연설, IMEMO의 2035년 세계 전망 발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마코프 전 총리 (사진 출처: www.gazeta.ru)

러·미 관계 개선은 가능한가?

‘러시아와 미국 - 제한된 대치 또는 잠재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러·미 갈등으로 인한 국제안보의 불안정성 심화를 경고하면서 양



국 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호소했다. 먼저 세르게이 로코프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CIA) 위원은 러시아와 미국의 상호 갈등 수준이 냉전의 정점이던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하면서, 두 강대국이 경쟁의 규칙에 합의해야만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접촉이 재개되리라고 내다봤다.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미국 측 협상 대표를 역임한 리처드 버트 전 주독 미국 대사는 양국의 국내 문제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핵 안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IMEMO 국제안보센터 소장은 핵 역지가 전쟁을 방지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오늘날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하여 이미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세계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대규모 군사작전도 공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오해(misunderstanding)가 언제든지 무력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명한 소비에트학 연구자인 로버트 레그볼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양국 간 조용한 외교적 협상을 기대하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정을 위한 채널 모색을 제안했으며, 세르게이 랍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잔이 절반 차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표도르 보이톨롭스키 IMEMO 원장 직무대행은 러시아와 나토의 분리가 국제안보에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쟁 방지를 위해 새로운 관계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와 키신저가 바라본 러·미 관계

첫째 날에 있었던 러·미 관계 세션의 논의는 사실상 프리마코프 독회 2017의 주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둘째 날 특별 세션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외교의 사령탑인 라브로프와 미국 대외전략의 원로(元老) 키신저의 연설을 듣기 위해 회의장은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먼저 연설에 나선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자국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방주의(unilateralism),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위반과 이와 관련한 군사적 요인의 강화로 인해 세계가 더 안정적이지도 더 예측 가능하지도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희생을 대가로 일부 국가의 번영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지구화 모델, 부국과 빈국 간 발전 수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새로운 산업·기술 우클라드가 고립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 불법 이주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의 교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서구 중심적 지구화 모델이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를 낳았으며, 사이버 범죄, 극단주의 선전 등으로 세계가 전례 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라브로프는 “앞으로 15~20년, 그 이후 세계 지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단언하면서, 군비 경쟁, 혼란과 통제 불능의 상황을 감수하며 시간과 자원을 계속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연합(UN)의 조정 아래 광범위한 국제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문명의 주도국들이 그들의 노력을 결집할 것인가를



프리마코프 독회 2017 세션 1 (사진 출처: 필자 제공)

한편,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러·미 관계 개선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더 국부적으로(locally) 움직이면서 상호 관계 재



물었다. 그는 러시아는 명확하게 두 번째 대안을 지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안정 보장에서 지역 분쟁 조정까지 수많은 국제 문제 해결이 바로 두 강대국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라브로프는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가 프리마코프와 키신저가 채택한 접근, 즉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적 방법에 의한 상호 국가 이익 보장에 입각하여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긴 연설을 마무리했다.

키신저는 프리마코프 생전의 잦은 만남을 회상하면서 비록 서로가 논적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미국과 러시아의 모든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서 긴장은 드물지 않게 발생했지만, 두 강대국의 분쟁은 인류의 재난이 되리라는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여 항상 그것을 극복하는 데 성공해왔으며, 결국 지금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신저는 협력과 갈등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원인을 이해해야만 한다면, 흥미롭게도 국가 안보에 대한 양 국민의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항상 불안정하고 영향력 있는 이웃들로부터 자국의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집중하면서 국경 수비와 질서 유지를 중요시했지만, 미국은 자신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나라와의 개방적인 무역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의 역동성(dynamism)을 억제하고자 했고, 미국은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키신저는 러·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신했다. “경험에 기초하여 나는 러시아와 미국이 그들의 노력을 결집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순간은 지금 시작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세계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느냐, 확고한 대화를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처럼 나도 낙관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바로 지금 러·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드킨 IMEMO 의장 (사진 출처: 필자 제공)

2035년의 세계

첫째 날 만찬과 함께 IMEMO의 2035년 세계 전망 발표가 진행됐다. 이 발표에서 특히 인상적인 내용은 ‘국제 안보의 세계’라는 주제 아래 제시된 4개의 시나리오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균형적 다중심 모델로의 회귀’이다. 여기서는 국가들의 국가 이익 간 갈등이 존재하지만, 협력이 우세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서방을 주요 전선으로 하는 대치’이다. 대대적인 군비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와도 서방과도 협력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상대적(準) 양극 체제’이다. 여기서는 각국이 두 개의 블록으로 무리를 짓는데, 한 블록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국가들, 이란, 파키스탄, 북한, 이집트, 남아공이, 다른 블록에는 미국과 나토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 일본, 호주 등이 결집한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 아래 실현되는 이른바 ‘리스본-블라디보스토크 모델에 따른 대대적 협력’이다. IMEMO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계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접어들고 있고, 그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주제는 세계와 러시아 경제의 발전 전망이었다. IMEMO에 따르면, 2030년까지 러시아



GDP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5년까지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 높을 것이며, 2030년대 중반 무렵 서방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결국 그것을 추월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EMO는 향후 20년은 러시아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시기가 되리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프리마코프 독회 2017에 참석하면서 필자는 행사의 내용과 함께 형식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먼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쿠드린 전 재무장관이 연설 후에 청중석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였다. 행사마다 의전과 격식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고위공직자와 달리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여주며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러·영 동시통역이 제공됐지만, 사실상 러시아어가 행사의 공식 언어로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인들이 모두 모국어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인이 비록 서툴더라도 발표와 질의응답 시 가능한 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러시아어의 국제적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